

# 조국 지키기 2라운드…與, 대국민 여론전·檢 개혁 투트랙

야당 국정조사·특검·해임안 등 차단위해 ‘개혁’ 빠른 속도 추진

이인영 “조국, 검찰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長考) 끝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국민적 반대여론이 상당했던 만큼, 여당은 흡집난 조국 신임장관에 힘을 실기 위한 여론전과 검찰개혁 ‘투트랙’ 전략에 집중할 전망이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신임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지난 6월까지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은 총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을 해당 공직에 임명했다. 지난 8월 9일 각각 발표를 통해 지명한 지 한 달만이다.

이날 오전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문 대통령의 결심을 전달받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검찰개혁과 대국민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들고 나온 국정조사와 특검·해임안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이 결집해 한목소리로 ‘조국 지키기’ 2라운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이 전해진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더욱 거칠게 검찰과 각을 세우고 있다. ‘윤

석열 책임론’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와 여권의 겹침을 향한 분노는 수위가 높다.

여권은 겹침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정경심 교수를 청문회 도중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을 겹침 개혁에 대한 겹침의 조직적 반발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겹침이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을 통해 겹침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강경론이 청와대와 여권에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트라우마를 소환한 여당은 이번에도 겹침에 밀리면 겹침개혁은 물건너 간다는 위기의식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겹침개혁이 조국 임명 강행의 가장 큰 명분이었던 만큼,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법무부장관이 칼을 뽑는 겹침개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와 여당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겹침이 조국 일

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상황이기에, 청와대와 여당으로 선 개혁 명분과 지지세력을 의식

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부인이 겹침 수사를 받는 와중에 법무부장관의 겹침개혁이 명분과 동력을 갖겠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겹침개혁’을 첫 순에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며 “겹침개혁과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겹침총장을 겨냥한 발언도 잊어지지 있다. 흥의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겹침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겹침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겹침총장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겹침을 저격한 것도 청



조국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과의 통화에서 “소신이 강한 윤석열 총장이 정부의 의지가 강한 겹침 및 사법개혁 국면에서 적임자일 것이라 보고 임명했는데 임명하고 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겹침개혁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안이라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고민이 크다”라고 말했다.

면서 “조직을 보호하려다 도리어 조직을 망치는 경영자는 경영자의 자질로서는 빵점”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도 겹침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청와대 한 참모가 페이스북에 ‘미처 날뛰는 늑대’, ‘검란(檢亂)’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공개적으로 겹침을 저격한 것도 청

와대 내부의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겹침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겹침을 겨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 문 대통령도 겹침의 1차 압수수색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격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의원은

지를 닦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2년2개월을 재직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는 등 사법·겹침개혁에 본격 나섰다.

조 장관은 민정수석일 당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재임한 ‘민정수석 2년4개월’의 기록을 깬 생각은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임기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조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였던 터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특집대담에서 ‘조 수석이 사법제도 개혁 등에 있어 일정 부분 소임을 다했다고 봐도 되나’라는 취지의 물음에 “이제 (그런 개혁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으니 (조 수석이)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 ‘농담’이 진담으로…토크쇼서 ‘조국 법무장관’ 찍었던 文대통령



“비(非)겹침 출신에 결단력 있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2011년 12월7일 서울에서 열린 ‘문재인 김인희의 겹침을 생각한다’ 토크콘서트장. 사회를 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저자 중 한명이자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장관에 누구를 임명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그려 문 이사장은 관객석을 향해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청중은 크게 환호했다. 2019년 9월9일 문 이사장의 농담 같은 말은 진담이 됐다.

두 사람은 고향부터 성격까지 통하는 부분이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고향은 부산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주요 무대는 부산이나 다

름 없다. 부산 소재 경남중·경남고를 졸업했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 사법연수원을 거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산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2012년에는 부산 사상에서 19대 국회의원도 했다. 두 사람 모두 꼼꼼한 성격이다. 위법이나 불의를 참지 못한다는 것도 닮았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 조 장관은 법학교수 출신이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첫만남은 조 장관에 따르면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당시 한 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시민사회수석이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2004년 5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시민사회수석을 지냈는데, 2004년 5월은

앞서 노 대통령에게 탄핵이 청구됐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던 즈음이다. 이후 두 사람이 ‘제대로’ 인사를 나눈 건 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던 2010년 즈음이었다 한다.

문 대통령은 여례로 조 장관을 아꼈다. 대표적으로 조 장관이

### 2011년 12월 “비겹침 출신 결단력 있는 조국 어여녀”

조국 ‘진보집권 플랜’ 칭찬하고 민정수석 발탁까지

2010년 ‘진보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써 보내자 문 대통령은 책을 잘 읽었다는 평과 함께 오탈자, 통계 오류까지 잡아내 함께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자서전 ‘운명’을 통해서도 진보집권 플랜을 칭찬했

을 민정수석으로 전격 발탁했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 장관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한 문 대통령의 인선 배경에 대해 “비겹침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분 한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광고 직통 ☎ 062)224-5800  
팩 스 222-5547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고립감 긍지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장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 한정승인공고

사건 번호 :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 1284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 문경식 (710215-1655613)  
최후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85-8 102동 1701호(국제아파트)

위망 문경식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제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정산에서 제외함).

2019년 9월 10일

공고인 : 전옥희, 문세현, 문가인.  
주 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85-8 102동 1701호(국제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9년 8월 30일  
공고기간 : 2019. 9. 10 ~ 2019. 11. 10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임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유품을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숙께서 제작한 술운전防止.

호남신문 공익캠페인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한잔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약속해주세요